



## ‘釜京 교류전’ 성인식을 맞다

무더위가 절정인 8월 18일,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흥우빌딩 14층에 자리한 부산바둑협회 사무실은 서울 홍익동 한국기원 2층 대회를 방불케 할 만큼 프로기사들로 북적북적 넘쳐났다.

예전 ‘도전5강’으로 불리며 ‘바둑 황제’ 조훈현과 ‘야전사령관’ 서봉수에 무수히 도전장을 던졌던 백성호 강훈 서능욱 九단을 비롯해 프로기사이면서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를 겸하고 있는 정수현 九단, 부산에서 열리는 행사라

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참석하는 부산의 터줏대감 이기섭 七단 김종준 六단 김준영 五단 장명한 五단도 어김없이 자리했다.

가만 보니 중견기사들만 모인 게 아니다. 젊은 기사들도 제법 보인다. 얼마 전 득남해 입이 짝 벌어진 ‘괴동’ 목진석 九단과 올 6월 프로기사 윤지희 三단과 결혼한 최철한 九단을 비롯해 이상훈 서무상 안조영 강지성 원성진 안달훈 한종진 박병규 등 10명 남짓 자리했다.

젊은 기사들이 10명 남짓 모였으니 중견회합



도 아닐 테고..., 대체 이 모임의 정체는 뭔가?

매년 8월, 부산에서 열리는 부경(釜京) 교류전이다. 부산과 서울 출신 기사들 10여 명이 모여 교류전을 시작한 것이 어느덧 20주년을 맞았고, 20주년을 기념해 그동안 이 교류전에 출전했던 기사들이 죄다 모인 것이다. 타이틀전처럼 화려하지도, 주목받지도 않지만 20년 세월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묵묵히 교류전을 개최하고 있는 흥우산업(주) 이철승 회장을 교류전을 1주일여 앞 둔 8월 10일 만났다.

-매년 여름 개최되는 부경 교류전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20주년을 기념해 준비한 깜짝 이벤트가 있나요?

“벌써 20년이라니..., 세월이 참 빠르죠. 이번 20주년 부경 교류전은 성인식인 셈이죠. 그동안 부경 교류전에 출전했던 기사들을 모두 초청해 교류전을 가질 생각입니다.”

-대규모 대회가 되겠군요.

“서울과 부산에서 16명씩 참가하는 교류전이 될 것 같습니다. 서능욱 김수장 목진석 최철한 사범 등 그동안 부경 교류전을 빛내준 기사들이 모두 모여 대회도 하고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해야죠.”

-부경 교류전을 기획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 시작한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연기회(부산 지역 프로·아마 강자들의 바둑모임으로 학초배에서의 부진이 기폭제가 됐다. 당시 부산에서 개최되는 최고위전에서는 부산 출신 강자들이 우승을 독식하다시피 한데 반해 인근에서 열리는 학초배를 비롯해 다른 대회에서는 예선에서 줄줄이 탈락하는 수모를 수년 동안 당하자 명예회복을 다짐하며 만든 모임이다)에서 하던 대회를 4회 때부터 제가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서울출신 기사들과의 관계도 돈독히 하고 부산출신 기사들을 격려하기 위한 뜻이었죠.”

-매년 여름에 개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바둑과 휴식을 동시에 즐겼으면 하는 의미로, 여름으로 잡았습니다. 광안리 바닷가에 들러 회 한 접시 하면 좋잖아요.”

-그 사이 여러 기사가 교류전에 왔을 텐데, 기억나는 분은?

“어렸을 때 봤던 목진석과 최철한 사범이 제일 기억납니다. 당시 갓 성인이 됐던 것 같은데 바둑도 세지만 술도 잘 먹고, 노래도 잘하고... 분위기를 한껏 띄워주었죠. 이제 두 분 다 결혼도 하고 해서 어엿한 가정이 됐다는 소식도 접했는데, 이번 교류전에 가족들이 함께 왔으면 좋겠습니다.”

-교류전을 하면서 여러 일들이 있었을 텐데요.

“워낙 점잖으신 분들이라 사건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큰일이죠. 그런 것 말고

재미난 일(에피소드)은?

“삭발 사건이죠.”

-삭발요?

“삭발한 건 아니고...”

-그 얘기 잠깐 들려주시죠.

“4, 5년 전쯤으로 기억하는데, 부산 팀이 서울 팀에 몇 년 동안 계속 지는 거예요. 물론 실력으로 보면 당연한 결과죠. 그런데 괜히 부아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면 우리(부산) 팀 모두 삭발하자고 겁박했죠.”

-삭발 겁박은 너무 심하셨는데요.

“하하. 얘기 계속 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힘 한 번 못쓰고 지던 우리 팀이 서울 팀에 12대 4로 압승을 거둔 겁니다.”

-겁박이 통한 거군요.

“겁박도 조금은 먹혔겠지요. 그런데, 실은 그

게 아니었어요. 부산 팀이 지면 전원 삭발한다는 소식이 서울 팀에 사전 유출된 겁니다.”

-삭발을 면하려면 저라도 서울 팀에 봐달라고 사정하겠는데요.

“사실 삭발이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전의를 불살라보자는 의미였는데..., 여하튼 이 사건 이후로 다시는 삭발 얘기를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 욕심이 동하면 결코 승자가 될 수 없다

흥우산업(주) 이철승 회장의 바둑에 대한 사랑은 남다르다. 부경 교류전을 20년 째 해 오고 있는 것 외에도 2006년 부산바둑협회 회장도 맡으며 부산 바둑활성화에도 적잖이 기여하고 있다. 사내 건물에 협회 사무실과 여성바둑협회(부산지부)를 두고 있으며 매년 협회장배와 부산시장배를 개최, 지원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요즘 바둑이 조금은 쇠퇴하는 느낌인데요, 부산 상황은?

“바둑의 인기가 시들해지는 건) 게임의 영향이겠지만 대회 분위기로 보면 예전과 크게 달라진 걸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례로 얼마 전 끝난 부산시장배를 보면 인원이 2000여 명(학부모 포함)이 나오는 등 성황을 이뤘습니다.”

-부산의 자랑인 신진서 군이 얼마 전 영재입단체회에서 당당히 입단했죠.

“기재가 대단한 아이로 알고 있습니다. 제2의 이창호, 이세돌처럼 성장해서 부산의 자랑이 되었으면 합니다.”

-회장님 바둑 실력을 빼고 갈 뻔 했습니다. 바둑 실력이 세다고 들었습니다.

“아이고, 형편없습니다.”

-5단증도 보유하고 계시죠.

“20년 전쯤에 받았어요. 그땐 조금 뒤틀렸죠. 이전 정석이고 뭐고 다 까먹어서 물렁물렁합니다.”

-바둑과는 언제 인연을 맺으신 거죠?





20주년 부경교류전 대국 모습. 이철승 회장이 서능욱 九단과 한종진 八단의 대국을 관전하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을 겁니다. 주위에 바둑 잘 두는 분들이 많아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어깨너머’가 스승인 셈이군요.

“하하. 그런 셈이죠. 고등학교 때 하숙을 했는데, 친구들과 자주 바둑을 두면서 실력이 쑥쑥 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책도 많이 봐서 웬만한 정석은 줄줄이 꿰고 있었죠.”

-지금도 바둑과 함께 하고 계시니 문겠습니다. 나에게 바둑은?

“생활의 일부분이죠. 초등학교 5학년 때 바둑을 접한 뒤 지금까지도 바둑과 연을 맺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함께할 영원한 동반자죠.”

-위기십결 중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기훈 하나를 꼽으라면?

“제일 첫 번째 기훈인 부득탐승(不得貪勝)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듯 바둑도 욕심이 생기면 이길 수 없잖아요. 얼마 전 끝난 올림픽 사격과 양궁 경기에서 여실히 보여줬잖습니까. 10점을 쏜 선수가 마지막 한 발을 남겨두고 7점, 6점도 쏘고 하잖아요. 욕심이 동해 평정심을 잃으면 금메달이 은메달이 되고, 은메달이 동메달이 되는 겁니다.”

-바둑의 매력은?

“실력이 늘면 늘수록 더더욱 재밌는 게 바둑이 아닐까 싶어요. 바둑은 이제 갓 입문 딱지를 댄 사람이 느끼는 재미보다 초급자가 느끼는 재미가, 초급자가 느끼는 재미보다 중급자가,



그 위로 올라가 유단자가 느끼는 재미가 점점 더 하다는 겁니다. 실력이 늘면 늘수록 오묘한 수의 세계가 보이는 탓이지요. 그게 바둑을 오늘날까지 유지해온 게 아닐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바둑계에 조언할 말씀이 있으면?

“금년 말에 통합(한국기원과 대한바둑협회)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바둑계가 하나로 뭉쳐 한목소리를 낸다면 지금보다 훨씬 발전하리라 확신합니다. 아쉬운 점은 스포츠토도 건인데, 하루 빨리 재추진됐으면 합니다. 일부 기사가 제기하는 우려는 다소 지나치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종목은 오래 전부터 해오면서 혜택을 보고 있는데, 바둑은 시작해 보지도 않고 걱정부터 하고 있잖아요. 너무 신중하지 않나 싶어요. 보도와 관련해서도 여건이 된다면 스포츠 면이 아닌 사회면에 바둑기사가 실렸으면 하는 것입니다. 스포츠면보다는 사회면을 더 많은 사람이 보니까요.”

〈인터뷰·사진/구기호 편집장〉